

새만금 · 군산경제자유구역의 생태관광 방향

임형백*¹ · 최흥규 · 이성우

¹성결대학교 · 전라북도의회 · 서울대학교

A Study on the Ecotourism Policy Direction of Saemangeum · Gunsan Free Economic Zone

Hyung Baek Lim · Hung Kyu Choi · SeongWoo Lee

¹Sungkyul University · Policy Research Institute of Jeollabuk-do Provincial Assembly ·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Saemangeum is the largest reclaimed land in Korea. Saemangeum is the large scale project responding to the economic demand of globalization, and a government initiated new development business with a vision of global Free Economic Zone(FEZ). Jeollabuk-province conducted a international competition to establish a global-scale, creative development plan and grow the Saemangeum as an international destination of economy, and a world-wide brand.

SGFEZ has much to offer in terms of tourists attractions and breathtaking scenery. And tourism is one of the important industry in SGFEZ. Many tourist facilities will be construct in SGFEZ. Environment is the important issue in many field of study. Recent days, green growth come into the spotlight in Korea. But even as SGFEZ prepares for its future global tourists attraction, so much of the tourism policy directions remains unconsidere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ourism policy direction, especially concentrated on ecology tourism policy direction of Saemangeum · Gunsan Free Economic Zone(SGFEZ).

Key words : SGFEZ(Saemangeum · Gunsan Free Economic Zone), ecotourism, tourism

I. 서론

1970년대 한국정부는 세계 최장의 간척제방을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원래 갯벌과 강어귀였던 지역을 농업용지로 바꾸려는 계획이었다. 이러한 야심은 식량 생산 및 자급자족을 위한 것이었지만, 20년 세월이 지난 지금, 농업적 자급자족의 가능성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 (Medić, 2008: 83).

1991년 11월 새만금 공사가 시작된 이후 우

여곡절 끝에, 2006년 4월 최종 물막이가 끝나고 33k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그 동안 환경문제가 제기되면서 2차례에 걸쳐 공사가 중단되었었고, 4년 7개월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동북아 경제 중심 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아래 농지규모는 30%로 축소한 반면, 산업 · 관광용지는 70%로 확대하였다. 2009년 3월에는 경제자유구역 조성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7월에는 ‘새만금개발

* Corresponding Author : e-mail : emperor10131@hotmail.com, Tel : +82-11-9001-0327, Fax : +82-31-467-8066

종합 실천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새만금을 베네치아나 암스테르담과 같은 세계적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단계 공사가 종료된 송도의 경우, 외자유치비중이 총 사업비의 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세계적 명품도시의 창조가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객관적으로 송도의 지리적 입지가 새만금보다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또 그 기저에는 기술 중심주의의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새만금에는 커다란 인공담수호가 만들어졌는데, 이 담수호의 수질관리는 커다란 과제이다. 이미 우리는 유사한 환경을 가진 시화호에서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프로젝트의 생태학적 영향이 서서히 감지되기 시작하고 있다. 간척제방은 새만금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변화시켜 놓았다. 우리는 새만금 삼각주를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생태와 경제, 그리고 국가적 야심 사이에 균형점을 찾을 수는 있을 것이다(Medić, 2008: 83).

즉, SGFEZ(Saemangeum Gunsan Free Economic Zone)의 개발은 아무리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환경파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개입을 통한 인위적 환경의 구축이 자연 그대로의 보전보다 친환경적일 수는 없다. 반면, SGFEZ은 고군산군도 지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생태관광시설과 기타 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녹색성장' 관련 시설이 있다. 이러한 시설은 그 특성에 따라 '생태중심주의'적 환경교육과 '기술 중심주의'적 환경교육에 이용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이처럼 대규모의 자연적인 환경과 대규모의 '녹색기술'이 공존하는

지역은 찾아보기 힘들다. 더구나 SGFEZ내에서 고군산군도 지구는 다양한 생태관광시설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지구로 가장 먼저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이 논문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에서 생태관광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특히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하 SGFEZ)이 관광을 주 목적을 한 것이 아니고, SGFEZ내의 여러 지구에 다양한 시설이 산재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생태관광이 SGFEZ에서 이러한 시설들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환경친화적으로 추구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II.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 계획

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개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하 SGFEZ)은 2008년 5월 6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되었다. 지정목적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5조 3,017억원 중 국비가 8.5%, 지방비가 9.0%, 민자가 82.4%이다. 면적은 4개 지구 66.986km²(2,026만 평)이다. 4개 지구를 표 1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4개 지구내에 고군산군도, 새만금 관광단지, 생태·환경용지, 유보용지(관광·레저용지)가 산재해 있다.

아래 그림 1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하 SGFEZ)의 토지이용 계획을 나타내고 있다. SGFEZ의 개발면적은 40,100ha¹)로 이중 토

표 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면적

군장국가산단지구	새만금지구		고군산군도 지구	군산배후지구
	산업단지	관광단지		
17.428km ²	18.7km ²	9.9km ²	4.326km ²	16.596km ²
26.0%	27.9%	14.8%	6.5%	24.8%

자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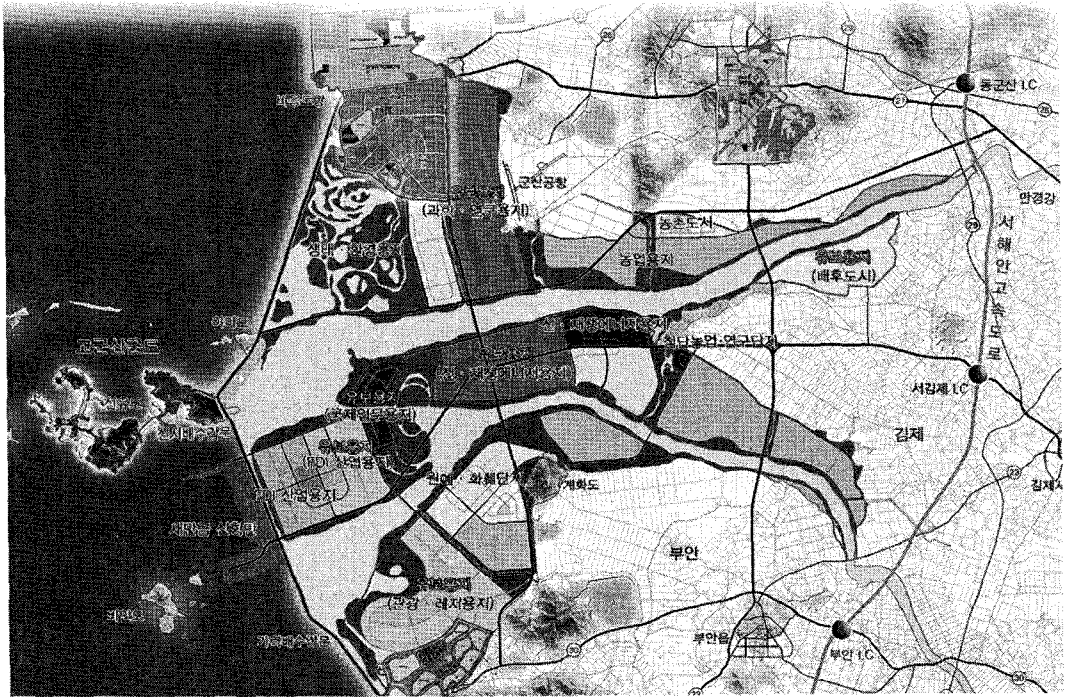


그림 1. 토지이용 계획도
 자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지조성이 28,300ha이고, 담수호가 11,800ha이다. SGFEZ의 육지부는 283km²으로 전체의 71%를, 수면부는 118km²로 전체의 29%를 차지한다. SG-FEZ는 해수와 담수가 공존하는 지역이고, 33k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가 존재한다. 이처럼 해수와 담수가 공존하는 지역은 세계에서 그 사례가 많지 않으며, 이는 우수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반면, 시화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담수호의 수질관리는 풀어야할 숙제이다. 특히 왕궁축산단지에서 유입되는 축산폐수, 주변지역에서 유입되는 산업폐수, 그리고 생활폐수의 정화를 통한 청정한 담수호의 유지는 생태관광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2. 새만금 · 군산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 계획

표 2는 SGFEZ의 토지용도별 개발일정을 나

타낸다. 이 중에서 생태·환경용지뿐만 아니라 관광·레저용지, 농업용지, 에너지 연구용지도 생태관광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른 지역에는 주로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체험형 생태관광이 가능하지만, SGFEZ에는 다양한 형태의 생태관광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자원이 있다. 특히 이처럼 대규모의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체험형 생태관광시설과 ‘녹색기술’이 공존하는 지역은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바꾸어 말하면, ‘생태중심주의’적 환경교육과 ‘기술 중심주의’적 환경교육이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 대규모의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다.

Ⅲ. 새만금 · 군산경제자유구역의 관광·레저 산업계획

1. 새만금관광지구

1) 1ha는 10,000m²이다.

표 2.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토지용도별 개발일정

구분	1단계(2020년)		2단계(2012년 이후)		
	면적(km ²)	비율(%)	면적(km ²)	비율(%)	
용지조성	계	184.1	65.1	98.9	34.9
	농업용지	85.7	30.3	-	-
	산업용지	19.5	6.9	9.2	3.3
	관광·레저용지	5.0	1.8	4.9	1.7
	농촌도시용지	4.6	1.6	-	-
	에너지 연구 용지	8.3	2.9	-	-
	생태·환경용지	50.0	17.7	9.5	3.3
	유보용지	-	-	75.3	26.6
	방수제 등	11.0	3.9	-	-
기반시설	항만	8선석		16선석	
	도로	12차로		46차로	
	철도	-		23.6km	
	용수	301백만m ³ /년		61백만m ³ /년	

자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SGFEZ의 새만금관광지구는 부안군 인접 새만금 사업지역 내부에 위치하며, 2008년 부터 2019년 까지 9.9km²(300만평)에 총 사업비 8,741 억원이 투입된다. 개발방향은 첫째, 동북아 최고의 ‘가족+기업’ 친화형 복합관광리조트 개발, 둘째, 골프단지과 테마파크가 결합된 레저 파라다이스, 셋째, 새만금 방조제-고군산군도-변산반도 국립공원을 연계한 해양관광벨트 조성으로 설정되어 있다. 유치업종은 테마파크, 대규모 골프시설, 컨벤션 센터, 호텔, 명품 아울렛 등 쇼핑센터, 문화시설, 공연시설 등이다.

새만금관광지구는 생태관광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적다. 그러나 바다, 호수, 녹지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특히 유치업종이 국내·외 골프여행객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생태관광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러한 관광객들도 여유시간에 생태관광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고군산군도 지구

그림 2는 SGFEZ의 고군산군도 지구의 개발

계획을 나타낸다. 이 지역은 군산시 옥도면 일대에 위치한 지역으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4.36km²(132만평)에 총 사업비 3,866억원이 투입된다. 개발방향은 첫째, 천혜의 자연경관과 연계한 체험·체류형 해양관광지 조성, 둘째, 중국,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제적 해양관광지로 개발, 셋째, 동아시아 최고의 고급 휴양 관광단지 육성으로 설정되어 있다. 유치업종은 워터파크, 어뮤즈먼트 파크, 마리나, 호텔, 카지노, 별장형 콘도, 복합 상업시설, 에코 메디컬, 생태·해양박물관 등이다.

고군산군도는 선유도, 신시도, 무녀도, 방축도, 말도 등 60여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선유도는 2.13km²의 면적에 500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고군산군도의 중심섬이다. 남서쪽에 있는 장자도와는 장자교로 연결되어 있어 쉽게 왕래할 수 있으며, 군산에서 출발하는 정기 여객선이 운항된다. 고려시대에는 여·송 무역로의 기항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승리 후, 선유도에서 열 하루동안 머물며 전열을 재정비하는 등 임진왜란 때는 함선의 정박기지로 해상요지였다(군산시, 2009: 12).

표 3. 환경교육의 목적과 목표

환경교육의 목적	환경교육의 목표
정의적/정서적 목적	자연 및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의 함양
도덕적/태도적 목적	환경적으로 책임성 있는 행동 윤리의 개발
인지적 목적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의 습득

자료: 박태운 외 5인, 2001: 61 재인용.

하고 있어, 고군산군도 지구와 생태·환경용지를 중심으로 한 표 4에서 (1)환경윤리교육과 (2)환경정서교육과 같은 ‘생태지향주의’적 환경교육과, 유보용지(과학·연구용지)와 신·재생 에너지용지, 첨단농업·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표 4에서 (3)환경과학교육과 같은 ‘기술지향주의’적 환경교육이 가능하다. 현재 대부분의 환경교육은 이용 가능한 환경교육시설 및 환경의 한계로 인하여, 교육현장에서는 생태지향주의적 환경교육과 기술지향주의적 환경교육의 한쪽에 중심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면에서 SGFEZ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특히 SGFEZ처럼 큰 규모를 가질 뿐만 아니라, 매립지라는 환경과 보전의 접점에 위치한 지역은 찾아보기 힘들다. 즉, SGFEZ은 인간의 행동이 자연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산교육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 환경친화적인 관광상품 개발

SGFEZ 내에 위치하게 될 다양한 관광시설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크

게 보면, 첫째 복합관광리조트, 둘째 국제적 해양관광단지의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새만금의 자연환경에 대규모의 인위적 개발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또 SGFEZ에서의 이러한 두 가지 개발 방향은 대규모의 관광객의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관광객의 유치를 통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할 경우, 환경친화적 개발과 환경의 파괴라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의 원인으로서는 대규모 개발 이외에도 자연의 수용력(carrying capacity)을 넘어서는 관광객의 방문을 들 수 있다.

그런데, SGFEZ에서 제일 먼저 개발이 되는 곳이 고군산군도 지구이다. 고군산군도 지구는 해양관광단지로 개발되며, 자연(생태)학습장, 생태 박물관, 갯벌 체험장, 해양문화 전시관,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선다. 이 이외에도 생태·환경 용지와 신·재생 에너지 용지가 있다. 또 최근 들어 ‘녹색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으며, SGFEZ은 담수와 해수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담수의 수질관리가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고군산군도 지구에 들어서는 생태 관련 시설을 활용한 환경친화적인 관광상품과 환경

표 4. 환경교육의 학제적 특성에 따른 분류

환경교육의 종류	중요시하는 본성 /강조하는 분야	중심학문/연계학문	환경적 책임에 이르는 방법
(1)환경윤리교육	자연의 도덕적 본성/인식과 지식	윤리학/철학·인문학	도덕적 사고→환경적 책임
(2)환경정서교육	인간의 심리적 본성/태도와 행위	심리학/인문학·예술	정서적 동감→환경적 책임
(3)환경과학교육	자연의 과학적 속성/기술과 숙련	자연과학/사회과학	과학적 사고→환경적 책임

자료: 고창택, 2005: 196.

친화적인 개발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SGFEZ은 새만금의 자연환경에 대규모의 인위적 개발을 하면서, 자연과 산업이 환경을 위해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환경친화적인 관광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곳에 편리한 시설을 갖춘 복합관광리조트를 건설하는 것만으로는 환경친화적인 관광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 지속가능한 관광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자연의 수용력(carrying capacity)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무리 환경친화적인 관광상품이 개발되더라도 수용력을 초과하게 되면 환경이 파괴된다. 사람들은 산이 좋아 등산을 가지만, 수용력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산을 방문하게 되면 자연이 파괴된다. 특히 고군산군도 지구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섬으로 구성되

어 있으므로, 수용력의 범위내에서 관광객을 조정하여 표 5에서 제시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관광과 환경이 상호의존적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관점은 양자간 공생적 관계 유지와 지속가능성과 생태관광의 개념을 묶는 데에 공헌했다(Hunter and Green, 1995; Mowforth and Munt, 1998). 확실히 관광객 수의 증가는 특정 환경의 보호 및 보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Holden, 2000). 또한 관광영향의 복합성은 규모, 성격, 환경의 다양성과도 관련된다. 우선 자연환경 측면에서 몇몇 관광활동은 환경적으로 예민하고 파괴되기 쉬운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대중 관광지로 가장 인기있는 두 곳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알프스와 지중해 지역이다(European Environment Agency, 1998). 즉, 이러한 지역에서는

표 5. 환경에 미치는 관광의 영향

영역	부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종의 다양성	-서식지 파괴 -사냥 또는 관광기념품 제작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동물 살상 -서식지 손상 및 종의 구성 변화 -식생 파괴	-동물 보호 -보호 및 보전지역 설립
침식 및 물리적 손상	-토양 침식 -관광자원 손상 -기반시설 파부하(예: 물 공급)	-관광 세입으로 관광지 보수 및 복원 -기반시설 향상
오염	-하수, 연료누출, 쓰레기로 인한 수질오염 -대기오염(예: 매연 방출) -소음 공해(예: 자동차, 관광지의 술집, 디스크텍 등) -쓰레기 발생	-청소를 통해 관광지 매력 보전
자원 기반	-지하수 및 지표수의 고갈 -물 소비량 증가(예: 골프장 또는 수영장) -지역 연료 고갈 -지역 건축자재 고갈	-새로운 공급원 개발
가시적 · 구조적 변화	-농지의 전환 -관광개발로 인한 자연 · 인공경관 훼손 -새로운 건축양식의 도입 -도시기능 변화 -인공환경의 확대	-비생산적인 토지 활용 -경관이 좋아짐(예: 도시의 결점 보완) -시설의 현대화와 재활성화 -쓰지 않는 건물의 재활용

자료: Hunter and Green, 1995; Williams, 1998.

자연의 수용력을 초과하는 대규모의 관광객의 방문이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역은 자연을 즐기려는 방문객의 좋은 의도와는 별개로, 대규모의 관광객의 방문으로 인하여 환경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SGFEZ에서 특히 고군산군도 지구는 육지와 고립된 섬 지역에 생태관광시설을 위치시킴에 따라, 생태관광시설의 이용객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군산군도 지구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수용력의 범위내에서 관광객수를 조절함으로써, 표 6의 1처럼 현재의 천연자원을 다음 세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실험장이 될 수 있다.

3. 차별화된 아이템의 개발

현재 SGFEZ 내의 고군산군도 지구와 새만금 관광단지의 관광 아이템을 살펴보면, 아직 차별화된 아이템을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새만금 관광지구 내의 컨벤션 센터, 테마파크, 쇼핑몰, 명품 아울렛, 실버휴양빌리지, 콘도·펜션, 골프장, 고군산군도 지구내의 마리나, 박물관(생태 박물관), 산악자전거 코스(MTB), 요트 하우스, 관광어시장, 자연(생태) 학습장, 테마 호텔, 워터프론트 등의 시설에 대한 밑그림은 그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른 나라에도 이에 못지 않은 대규모의 시설도 다수 존재한다. 즉, 유사한 아이템을 가지고 규모로써 경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발 주자로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차별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아이템이 필요하다. SGFEZ이 국제적 관광단지로 성공하

기 위해서는 국적, 소득, 취향 등에서 다양한 관광객을 유치하여야 한다. 이들에게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차별화된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그림 3에서 보여지듯이, 관광객의 다양한 기호와 수요를 파악하여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분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통념의 편안함’보다 ‘역발상의 불편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홍콩의 예를 들어보자. 홍콩사람들은 붉은색물고기가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 홍콩의 관광어시장에 가면, 금붕어 등의 관광어를 투명한 주머니만한 비닐봉투에 넣어 봉지 끝을 묶어 상점의 벽에 촘촘히 걸어둔다. 밀폐된 비닐봉지 속에서 관광어는 하루를 견딜 수 있다고 한다. 관광객들은 관광어의 터널을 지나가다 맘에 드는 관광어를 한봉지 간편하게 사 가지고 간다. 또 산위에 있는 거대한 좌불상을 참배하기 위하여 호수 위를 케이블카를 타고 지나간다. 그런데 그 케이블카는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다. 이런 사소하지만 관광객의 취향을 잘 파악하고,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하다.

4. 생태관광과 레저, 힐링(healing), 에코 메디컬과의 연계

장기적으로는 생태관광을 레저, 힐링(healing; 치료, 휴양), 에코 메디컬과 연계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소득의 향상, 주5일제 근무 등은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양하려는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육체의 피로를 푸는 것에서 벗어나, 정신적 휴양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표 6. 지속가능한 관광의 정의

	내용
1	다음 세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천연자원을 자연적 수용력(carrying capacity) 내에서 사용한다.
2	사람, 지역공동체, 관습 그리고 생활양식이 관광객의 경험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3	관광의 경제적 이익을 공평하게 누려야 한다.
4	관광지 지역주민의 소망에 부합해서 운영한다.

자료: Tourism Concern, 199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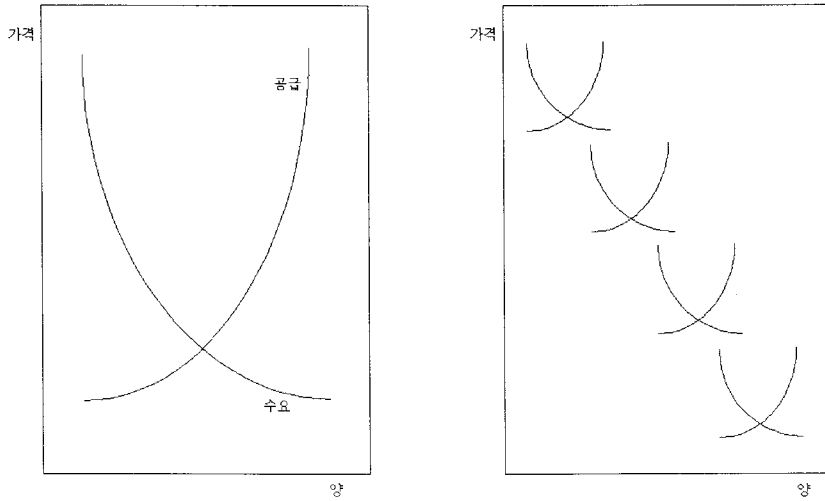


그림 3. 시장 집합(market aggregation)과 시장 분할(market segmentation)
 자료: OECD, 1995: 18.

이러한 경향을 고려할 때, 템플 스테이(temple stay)는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만 하다. 또 국제적 해양관광지와 동아시아의 고급 휴양단지를 추구하는 SGFEZ에는, 장기적으로 서구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도 있다. 1년에 한국을 찾는 유럽인은 약 44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동양의 정신문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템플 스테이(temple stay)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09년 3월에 독일 베를린 국제관광 박람회에서 템플 스테이 실연팀이 참가한 한국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한국관광공사가 2005년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9%가 템플 스테이를 체험해 보고 싶다고 응답할 정도로 외국인의 관심이 높다. 템플 스테이는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 스님)과 금산사(주지 원행 스님)가 올해 ‘제1회 전국 템플 스테이 문화축제’를 금산사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

5. SGFEZ내에서의 시너지 효과

관광은 대부분 여가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친구나 친척 방문, 교육이나 종교여행처럼 다른 중요한 목적도 있다. 또한 관광은 비즈니스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Shaw and Williams, 2008: 67). ‘회의관광’은 국내와 국제를 불문하고 대규모 사업이며, 1980년대 후반 북미시장만 해도 시장규모가 약 450억 달러에 이른다(Smith, 1990). 또 1980년대 초반까지 1만 4,000건의 국제회의가 있었다고 추정된다(Law, 1985). 최근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로 국제 ‘비즈니스 여행’은 급증했다. 1989년에 세계 비즈니스 여행 시장은 3,200억 달러의 규모를 넘었다(Peterson and Belchamber, 1990).

또 관광객은 소비형태와 관련해 구매과정이라는 특별한 단계를 거치게 된다(Shaw and Williams, 2008: 129). 관광지에서는 누구나 기억에 남을만한 기념품을 사려고 하고, 그 지역의 토속음식을 먹어보고 싶어한다. 또 오래 기억에 남을만한 추억거리를 만들려고 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대부분의 관광지는 이러한 면에서 획일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SGFEZ내에서 관광·레저산업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아이템을 살펴보자. SGFEZ내에 산재해 있는 이러한 관광 아이템이 시너지 효과

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라스베가스나 마카오를 카지노로 수익을 내는 도박의 도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들 도시는 카지노, 호텔, 컨벤션 센터(convention center), 문화공연 시설, 명품 아울렛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아이템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면, 관광 수요 계층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아이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으면,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들을 숙박으로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요즘 라스베가스는 종합 레저의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10년 전 컴퓨터 박람회인 컨벡스 컨벤션(COVEX CONVENTION)을 열면서 본격적으로 박람회가 라스베가스에 유치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매년 봄·가을에 전자 쇼와 방송장비 등 수많은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박람회를 통해 관람객들이 모이자 라스베가스 호텔들은 관광 마케팅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도박으로 버는 수익이 관광상품 개발로 들어가

는 선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SGFEZ의 다양한 관광상품을 이용하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컨벤션 센터, 복합 상업시설, 명품 아울렛, 문화공연 시설 등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새만금 생태관광객으로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일산의 킨텍스(Kintex)의 경우 컨벤션의 목적으로 개인이 참석하나, 컨벤션이 끝나면 각자 되돌아가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의 대부분은 숙박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통상 컨벤션(회의) 참석자들의 평균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숙박이다.

반면, SGFEZ은 다양한 관광상품이 존재하므로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가족단위로 관광객이 방문하거나, 혹은 컨벤션 등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시 가족을 동반하여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동안 가족은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태관광은 커다란 경제적 이윤을 남기는 분야가 아니라라는 점에서, 관광의 외연적 확대를 통한 경

표 7. SGFEZ내의 관광 아이템

	고군산군도 지구	새만금관광단지	기타
관광 아이템	호텔, 카지노, 워커파크, 에코메디컬, 복합 상업시설	테마파크, 골프장, 컨벤션 센터, 명품 아울렛, 문화공연 시설	새만금 방조제

표 8. 관광개발의 지역유형

관광유형	입지변수		선택지역			
	중심	주변	수도	도시	농촌	해변
국제문화	○		○			
산업문화유적		○		○	?	
국제회의 및 전시회	○		○			
회의	○	○	○	○		○
전시회	○	○	○	○	○	?
비즈니스 일반	○			○		
이벤트	○	○	○	○	○	○
여름 대중관광		○			○	○
겨울 대중관광		○			○	
여름 단기휴가	○				○	○
겨울 단기휴가	○		○	○		

자료: Williams and Shaw, 1990.

표 9. 회의 참석자들의 평균 지출

항목	지출비율(%)	
	유럽도시	미국도시
숙박	44.8	43.5
호텔 식사	7.7	10.7
외식	14.8	16.0
유홍	13.4	5.1
쇼핑	14.6	9.8
지방여행 · 교통	4.7	6.8
기타	.0	8.1

자료: Lawson, 1982; Shaw and Williams, 2008: 352 재인용.

제적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환경보전에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V. 결 론

이 논문은 새만금이라는 한국 최대의 매립지를 대상으로 생태관광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환경파괴의 논란속에 시작된 법정공방이 마무리되고, 새만금 · 군산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SGFEZ이 동아시아의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 · 레저산업의 허브를 지향하고 있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SGFEZ에는 4개 지구에 걸쳐 다양한 시설이 존재한다.

그 중 관광 · 레저산업도 하나의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고군산군도 지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생태관광의 적지로 평가받는다. 이 이외에도 생태 환경용지, 유보용지(과학 · 연구용지), 신 · 재생 에너지용지, 첨단농업 · 연구단지가 존재한다.

이 중에서 고군산군도 지구와 생태 · 환경용지는 ‘생태지향주의’적 환경교육의 장소로, 유보용지(과학 · 연구용지)와 신 · 재생 에너지용지, 첨단농업 · 연구단지는 ‘기술지향주의’적 환경교육의 장소로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SGFEZ처럼 큰 규모를 가질 뿐만 아니라, 매립지라는 환경과 보전의 접점에 위치한 지역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논문은 환경파괴의 논란속에 추진된 SGFEZ

이 한편으로는 ‘생태지향주의’와 ‘기술지향주의’가 동시에 가능한 대규모의 환경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는데 주목하였다.

고군산군도 지구는 육지와 고립된 섬 지역에 생태관광시설을 위치시킴에 따라, 생태관광시설의 이용객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쉽게 자연의 수용력(carrying capacity)과 균형을 맞출 수 있다. 한편, 고군산군도 지구는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에 다양한 생태관광시설이 설치되고, 이러한 시설들을 연결한 동선(動線)의 구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생태관광시설들을 동선에 따라 연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체험이 용이하다.

이 논문은 고군산군도 지구를 중심으로 SGFEZ에서 생태관광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SGFEZ에 산재하는 다양한 시설과 단지를 그 특성에 따라 ‘생태지향주의’와 ‘기술지향주의’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SGFEZ이 매립지라는 환경과 보전의 접점에 위치한 지역으로, 인간의 행동이 자연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환경교육의 장임을 강조하였다. 둘째, 환경친화적인 관광상품의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또 환경친화적인 관광상품의 개발이 단순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넘어, 자연의 수용력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추구하여야 하며, 환경교육의 효과까지 가져와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개발에서 자연의 수용력의 개념을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차별화된 아이템의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가족단위로 방문하는 관광객이라 하더라도 구성원에 따라 차이가 있고, 국가 · 소득 · 기호(preference)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객의 취향을 고려한 시장 분할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생태관광을 레저, 힐링(healing), 에코메디컬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추구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안의 하나로써 템플 스테이(template stay)를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SGFEZ에 산재하고 있는 카지노, 호텔, 컨벤션 센터, 문화공연 시설, 명품 아울렛과의 연계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추구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컨벤션에 참석자들의 평균 지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숙박임을 고려하여, 이러한 상품들의 연계성을 통한 가족단위의 숙박관광객 유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생태관광은 커다란 경제적 이윤을 남기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에서, 관광의 외연적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환경보전에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1. 고창택 (2005). 환경철학에서 생태정책까지: 이론과 실천의 만남을 위하여. 서울: 이학사.
2. 군산시 (2009). 새만금의 관광중심 도시 군산. 군산시.
3. 박태윤, 정완호, 최석진, 최돈형, 이동엽, 노경임 (2001). 환경교육학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4. 어영희, 김양자, 율김 (2008). (가레스 쇼 · 앨런 모건 윌리엄스 지음, 1994), 관광지리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5. Benedict, F. (ed.). (1991). *Environmental Education for Our Common Future: A Handbook for Teachers in Europe*. Oslo: UNESCO · Norwegian University Press.
6. Chadwick, R. A. (1987). Concepts, Definitions and Measures Used in Travel and Tourism Research. in J. R. Brent Ritchie and C. R. Goeldner (eds.). *Travel,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a Handbook for Managers and Researchers*. New York: John Wiley.
7. European Environment Agency. (1998). *Europe's Environment: The Second Assessment*. Oxford: Elsevier Science.
8. Holden, A. (2000). *Environment and Tourism*. London: Routledge.
9. Hunter, C., & Green, C. (1995). *Tourism and the Environment: A Sustainable Relationship?*. London: Routledge.
10. Law, C. M. (1985). *The British Conference and Exhibition Business, Urban Tourism Project*. University of Salford: Department of Geography.
11. Lawson, F. R. (1982). *Trends in Business tourism Management*. *Tourism Management*, 3, 298-302.
12. Medić, B. (2008). *Water is the Essence of Life, International Idea Competition SAEMAN-GEUM Comprehensive Urban Development Concept*, 전라북도, 80-99.
13. Mowforth, M., & Munt, I. (1998). *Tourism and Sustainability: New Tourism in the Third World*. London: Routledge.
14. OECD. (1995). *Niche Markets as a Rural Development Strategy*. Paris: OECD.
15. O'Riordan, T. (1981). Environmentalism and Education.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5(1): 3-18.
16. O'Riordan, T. (1988). The Politics of Sustainability. in Turner, R (ed.). *Sustainable Environmental Management: Principles and Practice*. London: Belhaven.
17. Palmer, J. A. (1998). *Environment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Theory, Practice, Progress and promis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8. Peterson, J., & Belchambers, K. (1990). Business Travel: a Boom Market. in M. Quest (ed.). *Howarth Book of Tourism*. London: Macmillan.
19. Smith, G. V. (1990). The Growth of Conferences and Incentives. in M. Quest (ed.). *Howarth Book of Tourism*. London: Macmillan.
20. Thornton, P. (1995). *Tourism Behaviour on Holiday: A Time-space Approach*. Unpubl-

- ished Ph.D thesis.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Exeter.
21. Thornton, P., Williams, A. M., & Shaw, G. (1996). Revisiting Time-space Diaries: and Exploratory Case Study of Tourist Behaviour in Cornwall, England. *Environment and Planning A*, 29(10), 1847-1868.
 22. Tourism Concern. (1992). *Beyond the Green Horizon: Principles for Sustainable Tourism*. Goldaming: Tourism Concern and WWF.
 23. Urry, J. (1995). *Consuming Places*. London: Routledge.
 24. Williams, A. M. (1998). Tourism Policies in a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in A. M. Williams and G. Shaw (eds.). *Tourism and Economic Development: European Experience*. Chichester: Wiley.
 25. Williams, A. M., & Shaw, G. (1990). Tourism in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Western European Experiences. in S. Hardy, T. Hart and T. Shaw (eds.). *The Role of Tourism in the Urban and Regional Economy*. London: Regional Studies.

2009년 10월 19일 접수
2009년 12월 23일 심사완료
2009년 12월 25일 게재확정